

李滉의 ‘鳶飛魚躍’ 이해와 시적 구현

신 연 우*

〈국문초록〉

『도산십이곡』의 「언지」 제6 종장에는 ‘魚躍鳶飛’가 나온다. 이 시어는 흔히 이황의 성리이것은 이황의 문학을 이해하는 주요 어휘로 생각된다. 이 어휘는 이황의 사상과 문학이 만나는 접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시경과 증용의 원문을 보고 정호와 주희의 주석을 살핀다. 원문과 해석 사이의 틈을 주목한다. 이를 이황이 수용한 양상과 시 작품의 내용을 살핀다. 사상과 문학이 만나는 지점을 고찰한다. 이어서 이언적과 이이가 그 어휘를 사용한 방법과 비교해 이황 문학사상의 특징을 드러낸다.

연비어약은 언어를 넘어서는 유학의 절대적 경지를 대표하는 어구이다. 이는 『詩經』 본래의 뜻에서는 벗어났지만 『中庸』 이후로 궁극적 실체로서의 道體를 형용하는 관습구가 되었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경지를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불교나 도교에서 뿐 아니라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나타낼 수밖에 없음도 마찬가지이다. 연비어약은 바로 그러한 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비어약 자체가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본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어서, 이론적 설명과 시적 형상화 양쪽으로 나타내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론적 설명으로는 어떻게 해도 그 궁극치를 형용할 수 없으므로 시적 형상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연비어약 자체를 시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이언적이나 이황 같은 주리적 성향의 성리학자에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럽다.

* 서울산업대학교

그러나 이황은 언어를 넘어서는 경지라 해도 도덕적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여준 것으로 특이하다. 연비어약을 자연의 생기의 활발함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이 위와 아래의 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연이 그러하듯이 인간에도 상하의 질서가 엄존함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라면 술개가 물 아래 놀고 물고기가 하늘을 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황의 지적은, 불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면서 그것으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마련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황의 생각에 유학은 불교의 그 경지를 포함하면서 사회 구성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이황이 연비어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편의 시로 나타낸 이유가 여기 있다. 사 계절의 질서와 연비어약의 약동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아는 것이 「도산십이곡」 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치이다. 「도산십이곡」은, 살아서 만물을 낳으면서 동시에 질서와 조화를 구현하는 세계의 근원적 모습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시이다. 그 점을 자연과 고인의 길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알아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자연과 도덕을 융화하고 있는 시이다.

핵심어 : 鳶飛魚躍, 도산십이곡, 궁극적 경지, 도덕적 경지.

1. 머리말

「도산십이곡」의 「언지」 제6 종장에는 ‘魚躍鳶飛’가 나온다. 이 시어는 흔히 이황의 성리학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타당하고 자연스럽다. 다른 시에도 이 어휘는 여러 차례 나타나고 언행록에서도 이에 대한 이황의 의견을 볼 수 있다. 그 시어를 도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경과 증용의 원전과 이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이황이 수용했기 때문임은 널리 지적된 바와 같다. 그러나 아직 그 원문과 해석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따져본 글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그

시조 중장의 ‘四時佳興’과 ‘魚躍鳶飛’가 어떻게 연관되는 지도 더 고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이것은 이황의 문학을 이해하는 주요 어휘로 생각된다. 이 어휘는 이황의 사상과 문학이 만나는 접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게 한다. 본고는 먼저 시경과 중용의 원문을 보고 주희의 주석을 살핀다. 원문과 해석 사이의 틈을 주목한다. 이를 이황이 수용한 양상과 시 작품의 내용을 살핀다. 사상과 문학이 만나는 지점을 고찰한다. 이어서 이연적과 이이가 그 어휘를 사용한 방법과 비교해 이황 문학사상의 특징을 드러낸다.

2. 『詩經』과 『中庸』의 ‘鳶飛魚躍’

‘연비어약’ 최초의 출현은 『詩經』 「大雅 旱麓」 편이다.

저 한산 기슭 바라보니 개암나무 싸리나무 울창하네
안락하신 우리 임께선 복도 편히 받으시네

술구기엔 옥자루, 절도 고와 울창주는 그 속에 철철 넘치네
안락하신 임이야말로 하늘에서 모든 복 받으시네

술개는 하늘을 날고 고기는 연못에 뛰네
안락하신 우리 임께선 모든 백성 덕화하시네

맑은 술을 차리고 황소도 갖추었으니
신에게 제사를 드려 큰 복을 삼가 빌리라

굴참나무 두릅나무 무성함은 백성들이 뉘나무 할 것
안락하신 우리 임에겐 신들도 위로의 손을 뻗으리

무성한 드렁흙 덩굴 나뭇가지에 감겨오네
안락하신 우리 임금께선 덕 닦으사 복 구하시네¹⁾

전체 6장은 모두 앞 두 구는 자연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뒤의 두 구는 군왕의 덕을 기리는 것이다. 『毛詩序』에서는 周나라 임금들이 선조의 성업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하여 복록을 가져오도록 했다는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²⁾ 군왕의 덕과 복을 기리는 내용일 뿐 도학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연을 보자. 시의 전체적 내용은 군왕이 복을 받는 것은 덕을 닦고 신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3연은 ‘연비어약’을 백성을 덕화하는 것과 연관지었다. 원문 ‘邇不作人’은 그 앞 장 주에서 ‘變化鼓舞之也’로 해설되었다. 그것은 임금의 덕으로 백성을 덕화하는 공효를 기리는 것이다. ‘연비어약’은 ‘興’으로 아래 주제를 이끌기 위한 역할을 한다. 백성을 덕화하는 임금의 덕을 기리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도 ‘연비어약’이 성리학적 도학 개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중용』은 이 시에서 단지 ‘연비어약’만을 따로 떼어 내서 새로운 해석을 했다. 주희도 이 점을 지적했다³⁾. 『중용』은 유명한 「費隱章」은 군자의 도가 광대하면서도 은미하여, 필부의 우매함으로도 알 수 있으면서도 성인도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시의 ‘어약연비’를 이용한다. ‘연비어약’은 ‘군자의 도가 위와 아래로 나타남을 말하는 것’(言其上下察也)이라 했다. 그것은 자연의 도의 체와 용이 상하로 드러나 無所不在함을 말한다.

주희는 이 장 첫 구의 주에서 ‘費用之廣也 隱體之微也’라고 했다. 도

1) 『詩經』, 윤영춘 역해, 한국협동출판공사, 381-382면.

2) 위의 책, 382면.

3) 詩中之意 本不爲此 中庸借此兩句形容道體, 『四書』(대학 중용), 성균관대학교 양현재, 74면.

의 用은 천지에 광범하게 드러나지 않음이 없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도의 체는 그 속에 있지만 可視聽의 범위를 벗어나 성현도 다 알기 어렵다는 이중성을 말하였다. 이 뜻을 전달하는데 '연비어약'이 요긴하게 쓰였다.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현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시적 현상이고 그 속에 각각의 도가 들어있지만, 이로 대표되는 천지 자연을 모두 묶는 하나의 리의 본체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는 현상 속에 있지만 현상을 안다고 도를 아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성리학의 이중성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은 현실을 떠나지 않지만 현실을 넘어서는 도를 구한다. 이를 이황은 '하늘은 말이 없고 도는 형상이 없다'는 안타까움으로 표현했다.

이황은 도의 이런 점을 받아들였고 이황의 사상은 이를 체계화한 것이고 그의 시는 도의 이런 점이 사상만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다.

3. 이황의 수용

이황은 '연비어약'에 관한 중용 본문과 주희의 해설을 충실하게 수용했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조식이 이황을 비난한 언사로 드러난다. 조식은 이황이 理에 천착한다고 비판했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도리어 남에게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아마도 선생 같은 어른이 꾸짖어 그만두게 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⁴⁾

4) 『국역 남명집』, 위의 책, 135면.

조식은 小學의 실천적 공행을 학문의 요체로 생각했다. 理 같은 형이상학에의 천착은 공리공론이 될 뿐이라고 했다. 이 두 사람은 학문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서였는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70 평생 한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다.

이황은 下學보다는 上達의 공부에 전념했다. 上達은 下學을 깨는 버리이기 때문이다. 상달의 궁극은 理의 體得이다. 리는 하나이면서 만물에 통하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리는 얻기 어렵다. 개개 현상에 내재하는 리를 통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리를 체득하는 것이 이황의 과제였다. 그 과정은 다분히 시적이다.

서정시는 개별적 시어를 통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서를 얻는다. 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체성을 얻는다. 하나는 자아라는 개별자와 세계라는 현상을 '자아화' 작업을 통해 하나로 엮는다. 둘째로 "구체적 이미지의 매개를 통해 이 매개체를 초월하는 어떤 초현실을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언어는 "하나의 동일한 것, 영원하고 불변적인 것, 곧 존재를"⁵⁾ 보여야 한다. 이 "존재"는 김준오가 하이데거를 설명하면서 이용한 말이지만 이황이 지향하는 궁극적 존재인 리의 개념과 크게 닮아 있다. '연비어약'은 이황의 『언행록』 「論理氣」항에서 취급되고 있다.

한형조의 연구에 따르면⁶⁾ 이황이 1552년 추만 정지운의 「天命圖說」을 수정하던 당시의 시대적 풍광은 아직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론적 체계나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 수입되어 읽히던 『性理大典』은 일상의 생활과 습관, 교유의 지침의 잠언집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잠언들은 일상의 사고와 행동을 보다 크고 깊은 근원인 天 또는 道와 연관시키는 한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⁷⁾ 것이었다. 이 작

5)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3년 3판, 27-59면.

6) 한형조, 「남명, 칼을 찬 유학자」, 박병련 외, 『남명 조식』, 창계, 2001, 43면.

업을 정지운이 시작했고 이황이 개정했고 이에 대해 기대승이 시비를 가리면서 이황의 主理論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된다.

'연비어약'은 바로 '일상의 사고와 행동을 보다 크고 깊은 근원인 天, 道와 연관'시키는 좋은 이미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 '일상의 사고와 행동'은 '구체적 이미지'이고 '天, 道'는 '하나의 동일한 것, 영원하고 불변적인 존재'인 바, '연비어약'은 슬개와 물고기의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약동하면서 동시에 질서를 가진 우주라는 일원적이고 항상성 있는 개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황이 생각하는 리를 직관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요긴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황이 理를 '연비어약'과 연결하는 구체적인 논점을 「언행록」과 「答禹景善問目」, 「答喬姪問目」을 통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비어약'은 도가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그리하여 세상 어디서든 도를 볼 수 있다는 유학적 긍정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황은 “이말은 실로 도의 미묘한 작용이 아래위로 밝게 드러나고 흘러 움직임이 가득히 찬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주자는 도의 흐름이 천지간에 나타나서 어디라도 있도다라 하였다.8)” 이러한 도의 적극적 작용을 '活潑潑'이라 하는데 이는 도가 천지 사이에 가득 차 있으며 활발히 움직인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도는 일상의 가장 흔한 것, 가령 부부간의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유학적 일상성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도의 '활발발'함은 이황에게 그대로 理의 적극성으로 해석된다. 이 시구는 원래 도와 별 관계없던 것을 도학으로 해석한 것인데, 그렇다 해도 그 현상은 기의 현상일 뿐이다. 후술하겠지만 李珣도 여기서 리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황은 리를 크게 강조한다. 이황은 이 시구가

7) 한형조, 같은 책, 같은 곳.

8) 「언행록」 4, 정순목, 『퇴계평전』, 지식산업사, 1994, 256면.

천지간의 활발발 뿐 아니라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황은 자사가 이 시를 인용한 본 뜻이 기에 있지 않고 리의 활발발한 묘용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했다.⁹⁾ 다른 곳에서도 연비어약은 기 가운데 리가 나오는 것을 말하지 먼저 기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¹⁰⁾ 자연의 활발발을 기의 운동이 아니라 리의 명령으로 읽는 것은 이황 이론의 특이성을 보여준다.¹¹⁾

그리하여 셋째로 이 시구는 세계의 조화 질서를 확보하는 도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솔개는 반드시 하늘에 있고 물고기는 반드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뒤바뀔 수 없는 천지의 질서를 나타낸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인가? 그것은 자연의 묘한 이치로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²⁾ 이는 불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나타난다. “만일 釋氏의 말대로 한다면 소리개가 못에서 뿔 수도 있고 고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되니”¹³⁾ 활발발은 같아 보여도 궁극처는 다르다고 했다. 이것이 “불교가 心이 있는 것은 알고, 理가 있는 줄은 모르는 것”이며, 나아가 “인륜을 모두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중용에서 이 시를 부부 얘기로 연결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天理가 있다는 말임을 강조한다. 이는 사람 사이의 도덕 법칙도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의 자연스런 조화 위에 일관되게 성립한다는

9) “其飛其躍固是氣也 而所以飛所以躍者 乃是理也 然子思引此詩之意 本不在氣上 只爲就二物 而觀此理本體 呈露妙用顯行之妙活潑潑地耳”, 『答喬姪問目』, 『도산전서』 3, 208-209면.

10) 中 ○ 者所謂形而上者也 孔子之所謂太極而子思之所謂鳶飛魚躍上面 使得他如此者也 理氣隨不可分而二之 而至論其源則其不可相雜也 … 元亨利貞兼理氣 不可言先言氣 爲飛就氣中指出理 非先言氣也, 『答禹景善問目』, 『도산전서』, 545-546면.

11) 김형효, 「퇴계 성리학의 자연신학적 해석」, 김형효 외, 『퇴계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3면.

12) 「언행록」, 위의 책, 257면.

13) 「언행록」, 위의 책, 258면.

믿음 위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 비판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초월의 경지가 유학의 궁극처와 유사해보이지만, 불교의 그것은 공허한 것으로 아무 작용성이 없으나, 유학의 그것은 구성력 있는 적극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학의 우월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로 ‘勿助長과 勿忘’의 의미이다. “하늘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理와 氣가 유행하여 잠시라도 쉽다. 사람 또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떠한 결과를 미리 기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빨리 이루려는 마음의 병통만 없다면(욕심 없는 하늘처럼), 마음의 본체가 드러나서 묘한 작용이 끊임없이 나타나 움직일 것이니, 그 모양이 곧 하늘과 같다는 것이다.”¹⁴⁾ 자연의 도리처럼 사람 또한 잊지도 않아야 하지만 조장하지도 않는 수행의 모습으로 이 시를 읽는 것이다.

4. ‘鳶飛魚躍’의 詩的 具現

이황은 같은 생각을 시로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다. 오히려 그 드러내려는 뜻은 시를 통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것은 언어와 분석을 넘어서 있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高臺臨眺傲無倚
萬事如今付釣洲
綉幕悠揚雲翼逸
金波潑刺金鱗游
風雩得處難名狀
壽樂徵時詎外求

높은 대에서 바라보니 앞이 탁 트였네
지금처럼 만사를 낚시에 맡기려다
술개는 갠 하늘에 유유히 날아 구름 속에 숨고
금물결에 금린어들 발랄히 유명한다
沂水 舞雩의 즐거움 형용하기 어려우니
壽와 樂이 나타남을 어찌 밖에서 구할 건가

14) 「언행록」, 위의 책, 258면.

老我極知蹉歲月
遺編何幸發潛幽¹⁵⁾

늙은 나는 세월과 어긋남을 잘 알았는데
다행히 『費隱編』에서 숨은 그윽함을 찾았다네

앞이 트인 강가에서 낚시를 한다. 낚시는 고답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 속에서 화자가 보는 것은 역시 일상의 새와 물고기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연비어약의 그것들이다. 일상에는 어디에나 도가 드러나 있어서 언제든지 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수 무우의 즐거움이고 수와 락의 나타남이다. 그 즐거움은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자연 너머에 있는 이치를 생각하고 느끼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그 이치는 솔개와 물고기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서 느끼는 이치와 나의 밖에 있는 세계의 이치가 하나임을 낚시하던 중에 새삼 느끼고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縱翼揚鱗孰使然
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¹⁶⁾

솔개 날고 고기 뿔을 뉘라서 시켰던고
천지 유행하는 활발발, 연못과 하늘에 기묘하다
강대에 해 지도록 마음 눈이 열렸으니
명성 한 큰 책을 세 번 거듭 외우려다

이 시도 마찬가지로 ‘天淵臺’를 읊은 것이다. 이 시에서는 특히 鳶과 魚의 활발발함을 체득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의 세계이지만, 그 이면에 마치 ‘누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인가? 그것은 자연의 묘한 이치로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⁷⁾ 자연의 理가 천지에 유행함을 깨닫고 마음 눈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15) 『天淵臺』, 『도산전서』 1, 91면.

16) 『도산잡영』, 『도산전서』 1, 97면.

17) 『언행록』, 위의 책, 257면.

다시 한번 책에서 성현의 말을 자연의 징험을 통해 확인하는 기쁨을 말하는 이황 시의 기본 틀이 반복된다.

江臺寥闊共登臨	강대가 조용하고 넓으니 함께 올라
俯仰鳶魚感慨深	술개를 쳐다보고 물고기 내려보니 느낌이 깊네
妙處自應從我得	묘처를 응당 저로 좇아 얻으라는
晦庵詩句爲君吟 ¹⁸⁾	회암의 시구를 그대 위해 읊어보네

이 시는 자기 거처를 찾아온 변성온에게 그 경지를 느껴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렸다. 연비어약을 통해 '妙處'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묘처란 위에서 본대로 리의 활발발함이며 일상에 존재하지만 일상을 넘어서 있는 근원처이다. 다음 시도 마찬가지이다.

每上江臺獨喟然	매번 강대에 올라 혼자 탄식터니
如今君亦詠天淵	그대 또한 천연대를 노래했군요
沂公妙處淳公發	자사의 묘처를 명도가 밝히니
千載誰能續舊編 ¹⁹⁾	천년에 누가 능히 구편을 이으리오

이황은 이 시에 '연비어약'을 정명도는 『孟子』 「浩然章」의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의 의미라고 해석하였다는 주를 달았다. 이를 알아야 천연의 묘를 안다고 하였다. 시경에서는 아직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자사의 중용에서 시작되어 정명도, 주희에 이르러 확연히 드러난 묘처를 체득하는 것이 공부의 지향점임을 말했다. 이를 혼자만 아는 것이 안타까워서 탄식해마지 않았는데 김자앙이 이를 따르는 듯 해 기쁨을 표현했다.

이들 시에서 '연비어약'은 '妙處'를 드러내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

18) 「湖南卞成溫秀才來訪 留數日而去 贈別五絕」, 『도산전서』 1, 108면.

19) 「奉次金子昂和余天淵臺韻」, 『도산전서』 1, 150면.

그 묘처는 「도산잡영 병기」에서 “전자(玄虛를 연모하고 高尚을 일삼음)의 말에 따른다면 제 한 몸만을 조출하여 인륜을 어지럽게 함에 흐를까 저어하겠고 그 심한 자는 새짐승과 벗을 삼으면서도 그릇됨을 모르게 된다. 후자(道義를 기뻐하고 心性을 기쁨)에 의하면 그가 즐거움은 조박에 지나지 않을 뿐, 그 미묘함에 이르러서는 구할수록 더욱 얻지 못하게 되니 그 무엇이 즐겁겠는가.”²⁰⁾라고 한 그 미묘함인 것이다. 그것은 이치를 따져서는 더욱 얻기 어려운 것이다. ‘연비어약’이라는 시적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이는 또한 불교와 다른 것처럼 노장사상과도 거리를 둠을 명확히 했다.

知魚莊惠論超然
不似沂公說對鳶
此理今人如會得
莫辭來共玩天淵²¹⁾

고기를 안다는 장자 혜자 논리가 초연해
자사가 솔개를 대한 말과 같지 않네
지금 사람 이 이치 알 것 같으면
함께 와서 천연대 즐기기를 사양 마소

장자와 혜자가 고기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던 고사를 끌어와서 그것과 유학의 이치는 다르다고 했다. 자연과 하나임을 말하는 것은 같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장의 자연은 무비판적 일체화요, 유학의 자연합일은 자연과의 분별을 거치고 난 후의 합일이어서 조화와 함께 질서를 갖춘 것이기 때문이다.²²⁾ 불교가 心을 알고 理를 모르듯이 노장은 슴을 알지만

20) 由前之說則 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甚 則與鳥獸同群 不以爲非矣 由後之說則 所養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도산잡영병기」, 『도산전서』 1, 95면.

21) 「觀魚石」, 『도산전서』 1, 123면.

22) 신연우, 「이황 산수시의 양상과 몰아일체의 논리」, 『한국사상과 문화』 20집, 2003. 한국사상문화학회, 57-63면.

질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느낌이 잘 살아난 시가 「陶山十二曲」의 것이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 | 사람과 흥가지라
흥몰며 魚躍鳶飛雲影天光이샤 어니그지 이슬고 (『言志』 其六)

春秋의 四時は 花滿山과 月滿臺처럼 각각의 충만한 내용을 갖는다. 그것은 리의 질서가 활발하게 작용을 하여 四時の 질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물의 충만함과 질서는 자연물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 사회의 것과는 한가지라고 한다. 사람도 자연처럼 충만함과 질서를 갖는다는 말이다. 자연이 시키는 이 없이 존재론적으로 당위적 질서와 충만함을 갖듯이 인간 사회도 선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당위적 질서와 충만함을 갖는 것이라는 이황의 생각이 이 시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궁극처이고 합일처가 ‘연비어약’으로 표현된다. 그런 깨달음은 끝없는 즐거움을 준다.²³⁾ 사시가 끊임없이 사시의 가흥도 끝없고, 사람도 ‘흥 가지’이다.

사 계절의 질서와 연비어약의 약동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아는 것이 이 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치이다. 연비어약의 약동은 세계의 질서로 구현되어야 하고, 세계의 질서는 연비어약의 역동성을 가져야 한다. 사시로 대변되는 질서 없는 연비어약은 기 일방의 움직임으로 무질서로 흐름 염려를 주고, 연비어약 없는 세계의 질서는 움직임이 없는 죽은 것이다. 연비어약은 사시의 흥을 주고 사시의 흥은 연비어약으로 집약된다. 살아서 만물을 낳으면서 동시에 질서와 조화를 구현하는 세계의 근원적 모습을 포착하여 표현하는 시어가 ‘사시가흥’과 ‘연비어약’인

23)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8, 29면.

것이다.

이 시의 출발은 도산서원 앞의 '천연대'와 '천광운영대'에서 늘상 바라보곤 하는 구체적 생활 정경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연의 경험을 통해 우주론적 인식의 세계로 도달한 확산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²⁴⁾ 바로 여기에 '연비어약'을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연비어약' 자체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의 구체적 현상을 통해서 그 너머에 존재하는 리의 활발한 작용을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평이한 것을 통하여 조화의 활발, 본연을 깨닫는 것"²⁵⁾이다. 그러나 우주론적 인식을 갖는 것은 氣論의 설명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이황의 그것은 그 너머에 있는 리의 작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덧붙여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이황이 발견한 것처럼 죽은 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리, 活理로서의 작용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이황이 여긴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²⁶⁾

「언지 6」과 짝을 맞추어 「언학 6」에서 愚夫와 聖人을 놓은 것은 鳶飛魚躍의 功效가 천지의 질서에서 인간 사회의 질서로 옮겨온다는 이해를 표현한 것이다.

愚夫도 알며혹거니 그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몰다혹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냇됨에 늙는주를 몰래라

이는 『中庸』 12장 본문에서 연비어약과 함께 짝을 이루어 나타났던 내용을 반복해 보여준다. 「언지」도 「언학」도 모두 『중용』 12장 내용으

24)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264면.

25) 최진원, 위의 책, 32면.

26) 다음과 같은 시는 같은 발상을 보여주면서 리의 적극적 작용을 더 강조한다.

“芸芸庶物從何有/ 漠漠源頭不是虛/ 欲識前賢與感處/ 請看庭草與盆魚”

「林居十五詠 觀物」, 『도산전서』 1, 92면.

로 종결지은 것이다. 언지의 그것은 연비어약이라는 리적 현상을 체득한 기쁨을 말했고, 언학의 終止는 그 체득을 위한 공부를 말하고 있다. 그 공부는 연비어약의 해석대로 勿忘이며 勿助長의 끊이지 않는 지속적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5. 李彥迪 · 李珥와의 비교

‘鳶飛魚躍’은 氣보다 理를 중시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된 듯하다. 이언적은 주리론에서 이황의 선배라고 하겠는데, 이황은 조선조의 선학 중에 이언적만을 학문적으로 인정했다.²⁷⁾ 그의 학문이 “이치가 바르고 뜻이 발라 그대로 하늘이 만든 것”이라고 한 것은 그가 주리론을 표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이언적이 “性理에 潛神하여 연비유행의 묘를 즐겼다”²⁸⁾는 행장의 기록은 의미 있다. 그는 연비어약을 제재로 한 시도 여럿 남겼다.

積雨新晴雲霧收
風生波面送輕舟
靑山曖曖明殘照
白鷺雙雙沒遠洲
浩渺一望天共遠
朦朧半夜月同流
鳶魚俯仰無邊興
誰識洪流逝不留²⁹⁾

오랜 비 새로 개니 운무가 걷히고
바람은 물위에 일어 작은 배 보내준다
청산은 석양 빛에 아른거리고
백로는 쌍쌍이 먼 물가에서 자맥질한다
넓게 트인 물 하늘과 함께 멀고
한밤중 어스름이 달과 함께 흘러간다
위로 슬개 아래로 고기 보니 흥취가 가없네
큰 물 흘러흘러 머물지 않음은 누가 알리

27) 「언행록」, 정순목, 『퇴계평전』, 282면.

28) 「회재이선생 행장」, 『회재선생문집』, 권 14.

29) 「舟中謾興」, 『회재선생문집』.

석양 무렵부터 한 밤에 이르기까지 배를 띄우고 흘러가며 연비어약의 이치를 생각한다고 했다. 자연의 흥취가 그 이면의 숨은 이치를 채득하는 흥취로 연결되었다. 그 이치는 『論語』에 이른 대로 밤낮으로 흘러 멈춤이 없는 것이다. 이 시가 실제의 풍경이라기보다 의구된 자연이라 할지라도³⁰⁾ 자연의 형상화와 이치의 연결이 매끄럽고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연비어약이 성리학적 논리로 추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함의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와 함께 흘러가면서 흐르는 물의 흐르는 이치를 생각하고, 물위의 솔개와 물아래의 고기를 보면서 천지에 가득한 생기를 느끼는 즐거움을 연결하는 것은, 리에 대한 논리적 분석보다 적실한 면이 있다.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 기와 마찬가지로 리 자체가 생명감을 드러내는 느낌의 총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이황이 시에서 “沂水 舞雩의 즐거움, 「費隱編」, 활발발, 명성 한 큰 책” 등의 어휘를 직접 드러낸 데 비해 위의 시 같은 것은 연비어약의 함축된 의미가 정서적으로 더 잘 응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언적은 「感興」이라는 시에서는 어지러운 삼라만상의 이치는 一天이라 하며, 신령한 공덕이 천지에 가득하다며 ‘魚躍鳶飛妙用通’이라 했다.³¹⁾ 연비어약은 上下로 밝게 드러나고 우주에 가득 차 일호의 틈도 일식의 멈춤도 없다³²⁾고 하고, 不偏不黨하고 勿忘勿助하여 從容自得廓然大公한 것을 연비어약으로 이해하기도 했다.³³⁾ 사람이나 천지의 理가 天理라는 一本에 융합관통되는³⁴⁾ 것을 뜻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이

30) 홍학회,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1, 137면.

31) 「感興」.

32) 鳶飛魚躍 昭著上下 亘古亘今 充塞宇宙 無一毫之空間 無一息之間斷, 「答忘機堂第一書」, 문집 5-10-69.

33) 「養心箴」, 문집 6-1-82.

34) 장도규, 『회재 이언적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2, 94면.

언적이 주리론에서만 이황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연비어약을 시적인 성취로 드러낸 데에서도 동질성을 보여준다. 연비어약을 흥취로 수용하는 것도 같다. 이는 이들이 주리론의 성향을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연비어약은 주희의 해석대로 자연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숨겨져 있는 리의 공효를 상징하는 대표적 시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는 달리 氣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연비어약을 리로 수용하지 않는다. 李珣를 들어보자. 이이도 연비어약이 『中庸』에서 道體를 형용한 것임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도가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임을 말했다.³⁵⁾ 그러나 시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魚躍鳶飛上下同	물고기 뛰고 솔개 나는 것 위 아래가 한가지라
這般非色亦非空	저것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로세
等閒一笑看身世	무심히 한 번 웃고 신세를 돌아보니
獨立斜陽萬木中 ³⁶⁾	석양의 나무 숲 속에 홀로 서 있네

이 시는 이이가 19살 때 금강산의 한 노승과 논쟁 끝에 내놓은 것이다.³⁷⁾ 불교의 卽心卽佛, 非色非空의 경지는 유학에도 존재하며 연비어

35) 이이, 「浴沂辭」, 「理一分殊賦」, 「畫前有易賦」, 『국역 울곡전서』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45면, 48면, 50면.

36) 이이, 「楓岳贈小菴老僧(并序)」, 『국역울곡전서』 1, 58-59쪽.

37) 한형조가 정리한 것을 발췌해 보인다.

(上略)李珣 : 불교의 핵심적 교리가 우리 유학을 벗어나지 않거늘 굳이 유학을 버리고 불교를 찾고 있소?

老僧 : 유가에도 '마음 그것이 곧 부처다'라는 말이 있소?

이이 :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말하면서 입만 열면 요순을 들먹였는데 이것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오? 그렇다면 우리 유학의 견해가 훨씬 적극적(實)이오.

노승 : (수궁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가 무슨 소리요?

이이 : 이 또한 상대적 의식의 특정한 양태(前境)일 뿐이오.

노승 : (빙그레 웃다)

약을 통해 그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비근한 현상인 연비어약도 비색비공처럼 초월적 경지, “절대와 해방의 공간”³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황과 달리 理를 말하기 위한 언질은 아니다. 한형조에 따르면 여기서 이이가 말하는 연비어약은 자연과 자신의 본원적 에너지의 절대적 힘과 공능의 적극적 지평과, 그것의 언어의 상대성을 넘어선 절대성의 언어로 사용된 것이다.³⁹⁾

그러나 그것은 리의 세계, 도덕성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이가 유학이 불교보다 낫다고 했을 때, 노승이 즉심즉불을 말한 것은, 유학이 갖고 있는 변쇄한 예의와 도덕이 우주와 자아의 막힘 없는 본래적 율회와 일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 것이었다. 여기서 도덕을 말하는 것은 노승의 논리인 불교우위에 빠져드는 것이다. 도덕성 이전에 우주에 충만한 활발한 에너지의 확충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 불교만큼이나 유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연비어약을 통해 전달하려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이 흡일 수는 있다. 우주적 기 자체가 선이라는 유학의 전제 아래 기를 발현하는 것 자체는 악일 수 없다. 또 이이의 경우에 선악은 결과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주적 氣 자체에서 선악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아가 生意를 충만히 하는 것이 선이

이이 : ‘소리개가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뜬다.’ - 이것은 색이요 空이요?

노승 : 색도 아니고 空도 아님은 眞如의 體요, 이런 詩로 어떻게 빗댈 수 있단 말이요?

이이 : (웃으면서) 언어적 표현을 거쳤다면 바로 상대적 인식의 지평(境界)이니 어떻게 體라 할 수 있겠소? 허면 유가의 핵심(妙處)은 언어를 통해 전할 수 없는데 불교의 진리는 문자 언저리에 있는 셈이오.

노승 : (놀라서 손을 잡고 詩 한 수를 청했다.)

38) 한형조, 『율곡사상의 유학적 해석』, 김형효 외, 『율곡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242면.

39) 한형조, 위의 논문, 위의 책, 223-246면.

라는 氣論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선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황이 연비어약에서 위아래의 질서, 솔개와 물고기의 본성으로 세계의 질서를 이해한 것과 아주 다른 것이다. 이황은 연비어약에서 선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질서의 도덕적 측면을 보고 있다.

이외에 이이가 연비어약을 시적 소재로 삼은 예는 거의 없다. 「陽智客軒清鑑堂 次仲蘊韻」이 유일한 듯 하다. 그러나 이 시는 사대부의 進退에 대한 시이다. “나아가면 재상이요 물러와선 산에 살아/ 분주함도 싫다 앓고 한가함도 싫다 앓네/ 하나의 근본이 만가지로 달라짐을 그대가 믿는다면/ 솔개와 물고기를 두 가지로 보지 말게”⁴⁰⁾ 이 시에서 연비어약은 “재상이 되든지 은거하든지 간에 出處의 의리는 하나임을 은유”⁴¹⁾한 것이다.

이언적과 이황은 현상 속에 숨은 리를 근원으로 중시했고 연비어약을 그 언어적 구현으로 수용했다. 이언적은 리를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황은 그와 함께 상하의 질서를 통해 인간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강조하고자 했다. 이이는 그것을 굳이 리와 연관짓지 않았다. 오히려 기의 생생함과 충만함의 표현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왜 이럴까?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주리론자들에게 리는 작용성이 있는 적극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결국 인간 사회의 도덕성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의 생기에서 질서를 읽어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적이지 않다. 그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시적 인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이의 경우 연비어약은 자연의 생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 굳이 인간을 위한 도덕적 구획을 상정하지 않는다. 자연은 자연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으로 충분할 뿐이다. 그리하여 이이의 시는 종종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40) 『국역 율곡전서』 1, 249면.

41) 앞의 책, 같은 곳, 주석 부분.

듯 초연한 태도를 보인다. 자연의 淡泊함을 보일 뿐이다. 주리론자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틈새를 시로 잇는 것이고 주기론자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6. 맺음말

훗날 주리적 성향을 가진 도암 이재가 제자인 녹문 임성주에게 ‘연비어약은 私意 없이 天理가 자연스럽게 유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마땅히 默會할 것이요 언어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듯이⁴²⁾, 연비어약은 언어를 넘어서는 유학의 절대적 경지를 대표하는 어구이다. 이는 『詩經』 본래의 뜻에서는 벗어났지만 『中庸』 이후로 궁극적 실체로서의 道體를 형용하는 관습구가 되었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경지를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불교나 도교에서 뿐 아니라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나타낼 수밖에 없음도 마찬가지이다. 연비어약은 바로 그러한 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비어약 자체가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본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어서, 이론적 설명과 시적 형상화 양쪽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론적 설명으로는 어떻게 해도 그 궁극치를 형용할 수 없으므로 시적 형상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연비어약 자체를 시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이언적이거나 이황 같은 주리적 성향의 성리학자에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황은 언어를 넘어서는 경지라 해도 도덕적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여준 것으로 특이하다. 연비어약을 자연의 생기

42) 김현, 「녹문 임성주의 철학사상」, 고려대 박사논문, 1992, 166면.

의 활발발함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이 위와 아래의 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연이 그러하듯이 인간에도 상하의 질서가 엄존함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라면 술개가 물 아래 놀고 물고기가 하늘을 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황의 지적은, 불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면서 그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마련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황의 생각에 유학은 불교의 그 경지를 포함하면서 사회 구성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이황이 연비어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편의 시로 나타낸 이유가 여기 있다. 사 계절의 질서와 연비어약의 약동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아는 것이 「도산십이곡」 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치이다. 「도산십이곡」은, 살아서 만물을 낳으면서 동시에 질서와 조화를 구현하는 세계의 근원적 모습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시이다. 그 점을 자연과 고인의 길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알아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자연과 도덕을 융화하고 있는 시이다.

<Abstract>

The way of Leehwang's understanding <Yonbi-Oyak(鳶飛魚躍)>

Shin Yeon-Woo

We see the term <Yonbi-Oyak(鳶飛魚躍)> in Tosan 12 songs and other poems by Leehwang. The term means "Birds fly in the sky, Fish swim in the water."

It is important I think in that it is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his poems and thought.

There is a gap between original text of <Yonbi-Oyak>, [The way of mean(中庸)] and Leehwang's understanding.

It is same with Buddhism and Taoism as confucianism in the idea that we cannot describe the Ultimate into the human language. <Yonbi-Oyak> is the very confucian way of that.

But Leewhang has the peculiar idea that it can't pass over the Moral state even though its meaning is over the human language.

Keywords : <Yonbi-Oyak(鳶飛魚躍)>, Tosan 12 songs, the Ultimate, Moral state

논문투고일 : 2004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7월 7일